

2026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광주문화방송(주)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 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6	6.24	회의실	11/15	3	1	15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명규·박봉순·반수경·설제학·심재현·안유성·유동국·이숙영·이해경·조명근·한지혜(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황동현(경영전략본부장), 김철원(방송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광고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1	3	4	0	0	7	0	8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8	0	0	8

다. 의견제시(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법률적 대안, 수사내용, 비판적 감시와 후속보도 지속 필요 등 관심 가지길 바람	<뉴스투데이> “탱크데이” “스타벅스가야지”··배재고 야구부 논란(6.30), 이번엔 5.18사적지에 ‘군화’··도 넘은 조롱(7.1) 등 방송 조치	’26.6
”	<시사용광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과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바람	방송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	”
”	행정통합 이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해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하나 된 행정··‘의료격차 해소’ 과제(6.26), 40년 만의 재결합··지역번호·신분증 ‘그대로’(6.30),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통합의 두 번째 승부(7.2), “전남은 20만 원, 광주는 0원”··수당 ‘격차’ 진통(7.3), <빛나는 나의 도시> 하나 된 전남과 광주 일상의 변화(7.1) 등 방송 조치	”
교양	지역의 고유한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 바람	<뉴스데스크> 장성미식산업진흥원 개원··‘미식관광 거점’ 시동(7.4), <빛나는 나의 도시> 믿고 가는 시청자 추천 맛집(7.2) 등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현장 중심의 리포팅 비중을 확대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니가 핫해서 좋아(6.25), 믿고 가는 시청자 추천 맛집(7.2), 광주에서 외치는 앓살라무알라이쿰!(7.8), 어푸어푸 광주에서 즐기는 바다(7.9) 등 지역 관련 현장 취재 아이템 지속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의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 정보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매주 목요일 지역 문화예술 행사 정보 고정 코너 운영	”
”	<빛나는 나의 도시>, 스튜디오에 설치된 대형 콘텐서 마이크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시청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디자인이나 크기에 대한 검토 필요	방송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상시로 다양한 마이크 교체 사용 조치	”
기타	라디오 시스템 점검으로 방송 중단. 점검	방송기술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점검 시	

(시청자 의견)	시간 조정 필요	간 검토 조치	
합계		8건	

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 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법률적 대안, 수사내용, 비판적 감시와 후속보도 지속 필요 등 관심 가지길 바람(반수경, 설제학, 조명근)	배재고 논란 관련해서는 사안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후속보도 이어 나가겠음	○		
"	<시사용광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과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바람(이해경)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	행정통합 이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해주길 바람(한지혜)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통합 사례를 취재해 보도함으로써 성공조건과 교훈이 되는 사례를 잘 알려 나가겠음	○		
교양	지역의 고유한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 바람(안유성)	지역의 맛과 멋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취재와 방송을 독려해나가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현장 중심의 리포팅 비중을 확대 바람(유동국)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타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취재를 알차게 준비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의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 정보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 바람(유동국)	꼭 알아야 할 문화예술 정보와 잘 알려지지 않은 공연 정보를 소개해 나가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스튜디오에 설치된 대형 콘텐서 마이크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시청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디자인이나 크기에 대한 검토 필요(유동국)	제작진에게 의견 전달해서 향후 개선될 수 있게 하겠음	○		
기타 (시청자 의견)	라디오 시스템 점검으로 방송 중단. 점검 시간 조정 필요	시스템 점검 시간을 조율해 라디오 청취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6월)

일 시	2026년 6월 24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 원 회	김명규 · 박봉순 · 반수경 · 설제학 · 심재현 · 안유성 · 유동국 · 이숙영 · 이해경 · 조명근 · 한지혜 위원(11명)	
	회 사	김낙곤 사장,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김철원 방송본부장(3명)	

■ 회의 내용

- 참석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 불참 위원이 네 명이 되어 참석 위원 동의하에 다음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기로 함
-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연장자인 박봉순 위원을 임시 위원장으로 정함

- 박봉순 위원장 : -연장자라는 이유로 오늘 임시 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동신대학교 근무하고 있다. 방송 분야 위원회는 처음 참여하게 됐다. 광주MBC가 지역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드린다. 사장님 말씀부터 듣겠다.
- 김낙곤 사장 : -시청자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서 정한 법적인 기구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시민,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을 추천받았다. 시청자위원 추천공모를 텔레비전 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진행한 결과 오늘 시청자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인 시청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 콘텐츠를 주인인 시청자께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지적. 공영방송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주인인 시청자 여러분을 모시게 돼 영광이다.
- 박봉순 위원장 : -다음은 회의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해달라.
- 김철원 방송본부장 : -조직개편을 통해 보도본부와 콘텐츠본부 두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 방송본부가 됐다. 새롭게 신설된 디지털본부도 있는데, 뉴미디어에 대응하게 된다. 먼저 뉴스팀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민 기대가 큰데 준비가 잘 되는지 기획보도를 매일 하고 있다. 단순히 자치단체 통합이 아닌 분야별로 잘 되고 있는지 잘 알리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뉴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국 첫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우선 정책 등 전남광주통합시에 인센티브를 시사한 점이나 엠코를 비롯해 대기업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 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반도체 도시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비롯해 3조 6천억 빛더미 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전부터 재정이 비상이라는 점, 인수위원회 인적 구성 등 행정, 경제 분야 발제 다양화 등을 보도했다. 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통합으로 91명 체제의 대규모 통합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통합시의회가 첫 단추부터 협치가 실종됐다거나, 초대 의장 선출 분수령 및 이에 따른 소수정당 반발 등 우려와 기대를 다양하게 조명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개표방송을 네 차례 진행했다. 시청률과 점유율이 경쟁사보다 월등한 기록을 보였다. 단독보도로는 이채원 양 관련 기획보도를 했으며, 탕크데이 논란도 앞장서 보도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 사례를 취재한다. 프랑스와 일본 등 행정통합을 광역 단위로 시행했던 사례를 취재해 통합특별시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보도를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장마철을 맞아 재난방송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비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회사를 방문해 재난방송 규정과 시설을 점검했다.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 앵커 개편이 있었다. 오래 진행해온 연빛나 아나운서가 하차하면서 아침 뉴스 진행자가 바뀌었다. 회사 아나운서 자원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다큐멘터리 <스팅>을 제작 중인데 조은영 피디가 중국 출장을 마치고 어제 복귀했다. <빛나는 나의 도시> 매거진 프로그램에는 빛나는 초대석에 민형배 당선인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사용광로> 제작부서를 보도에서 콘텐츠팀으로 옮겨 탕크데이 논란, 반도체 단지 등 제작했다. 콘텐츠팀 주요 계획으로는 7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대도약의 시대 미래 비전 선포식>이 남도일보와 공동주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광주MBC와 목포, 여수MBC가 생방송 할 예정이다.
- 박봉순 위원장 : -업무보고 감사드린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김명규 위원 : -반갑다. 시청자위원회는 처음 참석하게 됐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했다. 광주MBC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보도 등에 관해 시청자를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청요구를 하는 자리인 것 같다. MBC에 대해서는 애정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프로그램을 못 보기도 했다. 앞으로 애정해서 챙겨보고 의견을 드리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

- 반수경 위원 : -제가 일하고 있는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인공지능 관련 교육기관이다. 방송미디어를 통해 채널만 돌리면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면 문의를 바란다. 지난해 이어 시청자위원을 맡게 됐는데 숙제가 쉽지 않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 청취를 해야 하는데 위원으로서 좀 더 노력해서 광주MBC에 작은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함께 해주셔서 반갑다.

-〈시사용광로〉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과장과 대책은? 편에는 손술 진보당 의원,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유한별 변호사, 박승환 광주MBC 기자가 출연했다. 역사에 대한 무지, 감수성, 양심에 크게 문제가 되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전략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 점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탱크데이 마케팅 전말을 좀 더 상세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시청자 중에는 막연하게 스타벅스가 뭔가 잘못했다는 정도는 알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그런 점들이 어떠한 사회 문제와 결부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서 좀 더 상세하게 문제 과정도 다루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또한 법률적으로 왜곡과 조롱, 모욕 부분에서는 특별히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에 준하여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대안과 진행되고 있는 수사내용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뉴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설재학 위원 : -좋은 인연으로 MBC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나누고 교류했으면 한다. 6월 11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스타벅스가 진행했던 탱크데이 이벤트를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연히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와 함께 시청했다. 젊은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했는데,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중학생 자녀는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마케팅이었다”라는 생각이었다. 아무리 단순한 마케팅이었다 하더라도 광주시민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사였으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고등학생 자녀는 “의도적인 왜곡이 아닌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는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견으로 생각되었다. 대학생 자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다. 또한 친구 중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를 언급하며, 점주나 직원들까지 미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이야기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논란이 5·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회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도해주길 바란다.
- 심재현 위원 : -저는 법률가로서 언론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겠다. 단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정치적 중립성이든, 스타벅스 기업과 같은 문제 등에 관해 앞으로는 위원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느낀 바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
- 안유성 위원 : -저는 요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MBC 같은 방송이 있어 행복했다. 다큐라든가, 시사적인 거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동안 <핑크피쉬>나 김치를 다루는 다큐 같은 거 전국에 방송되며 요리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도록 붐을 일으켰다. 우리 지역이 가장 잘하는 것은 음식이다. 케이푸드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 케이 컬처에서 가장 중요한 케이푸드는 우리 지역, 호남에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민형배 시장도 케이푸드에 관심이 많다. 케이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해야겠다.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말과 쓴소리를 해서 함께 나가겠다. 광주MBC가 지역의 고유한 음식과 문화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방송해주길 바란다.
- 유동국 위원 : -저는 에스비에스에서 15년간 근무했다. 시청자위원이 돼 감회가 새롭다. 요즘 글로벌 OTT나 SNS, 유튜브 등 때문에 전통적 매체가 힘들다. 모든 공중파가 상당히 좋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된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으로서 지역을 위해 역할이 분명히 클 것 같다. 광주MBC가 자체 방송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면 좋겠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화·수·목 오후 6시에 방송되는 50분 분량의 정보 프로그램이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을 차용한 스튜디오와 ENG 취재를 결합한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연빛나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시청자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 참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화면에 QR코드를 고정 노출하고, 참여 시청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도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는 좋은 장치로 보인다. 또한 광주MBC 자체 제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무주 낭만 여행, 고창 수박, 대구 막창 맛집, 부산 외국인 추천 맛집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지역방송이면서도 시청자의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박지선 리포터는 현장 취재에서 특유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현장 중심의 리포팅 비중을 확대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을 게스트로 초청하여 지역 생활정보를 넘어 시사적 이슈와 정책적 내용을 함께 다루는 구성도 의미가 있었다. 통합시 이후의 정책 변화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 주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에도 부합한다.

다고 생각한다. 한편, ‘백금열의 뉴스모타모타’ 코너는 주요 뉴스를 분석해 주는 유익한 코너이지만, 오후 6시 시간대의 프로그램 성격을 고려할 때 다소 무겁게 느낄 수 있었다. 정보 전달의 기능은 유지하되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시청자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끝에 광주·전남 지역의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 정보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이는 라디오 콘셉트를 강조하기 위해 진행자들이 핀마이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에 설치된 대형 콘텐서 마이크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히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 소품 역할이라면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시청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디자인이나 크기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이숙영 위원 :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해 영광이다. 열심히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이해경 위원 : -시민단체 시민행복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다. 시민행복발전소는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 연구소다. 1년에 여섯 회 정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광주 토박이인데 MBC를 어려서부터 보고 지금까지 시청하고 있다. 현재 방송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알고 있다. 미디어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며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 시청하고 듣고 해서 지역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광주MBC <시사용광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지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와 패널들의 대담을 통해 사안의 배경과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점은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프로그램이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진단에 집중하는 반면, 해결 방안이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진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과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조명근 위원 : -해양에너지는 잘 아시겠지만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다.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청자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다.

-6월 11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파장은?을 주제로 방송한 <시사용광로>에 관한 의견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월 18일 텀블러 할인행사에서 사용된 마케팅 문구가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연상시키며 역사적 비극을 회화화했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대기업의 역사 인식 부재를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강력한 규탄, 경영진 문책 요구, 그리고 ‘꼬리 자르기’ 논란까지 이어진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치부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줬다. 특히, 이번 논란은 기업의 혐오 비즈니스와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사과문 발표나 일회성 인사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좋았다. 이번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기업의 역사 인식 문제와 지역 폄하 행태를 감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비판적 감시와 후속보도가 지속되어야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한지혜 위원 : -예전부터 광주MBC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지난 6월 17일 방송된 광주MBC의 지역 초밀착 매거진 프로그램인 <빛나는 나의 도시>에 출연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대담 방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는 7월 1일, 전국 최초의 통합 광역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초대 시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당선인이 우리 지역의 대표 매거진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시청자들과 지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민 당선인은 방송에서 행정 체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순천 동부청사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검토하고, 광주 청사에는 기관 유지 기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무안 청사로 첫 출근을 하겠다는 과격적인 분산 운영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복잡한 분산 운영이 가져올 부작용을 해소할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방안이나 행정 효율성 저하 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화상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거나 “어느 청사에서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식의 설명은, 당장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시스템이 적용되는지, 시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겪을 민원 처리 과정의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디테일이 빠져 있었다. 또한 주청사 주소지 지정을 둘러싸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광주지역 간의 기 싸움과 정치권의 갈등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연착륙시킬 구체적인 정무적 로드맵이나 상생 방안을 깊이 있게 끌어내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은, 출범 초기 예상되는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시청

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압도적 성장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어떻게 편리해지고 지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구체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이자 위원으로서, 이번 대답은 화려한 청사진에 비해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계획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도 행정통합 이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문제에 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해주길 바란다.

- 박봉순 위원장 : -각 분야 위원님이 현안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우리 위원회는 정식 명칭이 시청자위원회다. 광주MBC 시청자위원회가 방송 분석도 하고, 회사로서 더 잘 되고, 독립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시청자위원회니까 시청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MBC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소속된 조직의 일원으로 위원회를 꾸려 나가길 바란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역할일 것이다. 방송의 한 부분을 지적하고 평가하며 사전에 의견도 내고, 광주MBC가 양질의 뉴스와 시사를 제공하고, 시민이 문화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할을 부탁드린다.

-기타 제시된 의견으로 시청자 의견이 있다. 예전에는 02시부터 라디오 시스템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는 01시부터 점검을 하여 프로그램 청취를 못 했다는 의견이다. 시스템 점검을 일찍 하면 근무자는 편리할 수 있지만 밤늦게 라디오를 청취하는 처지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다. 청취자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하여 이뤄지는 게 우선일 것이다. 이 점 고려하여 주길 바란다. 끝으로 사장님 말씀을 듣고 6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 김낙곤 사장 : -프로그램을 평가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광주MBC는 큰 줄기로 지상파를 탑재한 플랫폼이 있다. 하지만 지상파가 많이 축소돼 있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상파 뉴스와 편성 프로그램인 <빛나는 나의 도시> 등이 있지만, 오늘은 디지털본부장이 빠졌는데 <더 프레지던트> <전설의 타이거즈> <열씨구당>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있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칭도 그렇고 과거 지상파의 기준으로 돼 있다. 시대에 맞게 플랫폼 위원회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광주MBC는 지상파를 탑재한 플랫폼 회사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가 많고 지상파가 줄어든 상황이다. 협의해서 디지털본부장도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 OTT 시대에 맞게 디지털 프로그램도 같이 다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본부장 참석 등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

끝.